

우주 최고령 은하 찾아냈다

지구와 132억광년 거리...4억8000만년경 존재

우주의 유년기에 존재했던,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最古)의 은하가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포착됐다고 국제연구진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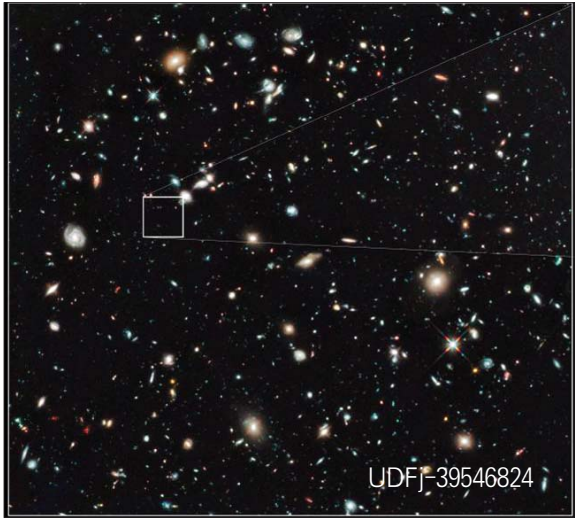
미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132억광년 떨어진 우주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은 밝은 점으로 보이는 은하를 발견했다고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이 은하는 빅뱅 후 4억8000만년 경에 존재했던 초기 은하로 이보다 오래된 은하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된 은하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 전의 것이다.

연구진은 “최초의 은하는 빅뱅 후 2억~3억년 경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은하는 시기적으로 이와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발견한 UDFJ-39546824는 적색편이 10.3으로 지난해 프랑스 연구진이 발견한 131억광년 거리의 은하 UDFy-38135539의 적색편이 8.6을 훨씬 능가해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의 것임을 말해 준다.

연구진은 적색편 10.3은 허블 망원경의 한계치로 이보다 깊은 우주를 관찰하



려면 미항공우주국(NASA)이 오는 2014년 발사할 계획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연구진은 지난해 빅뱅 후 6억년 경에 존재했던 은하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새 연구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의 가스 일링 위스 교수는 새로 발견한 은하의 나이보다 더욱 흥미있는 것은 같은 연령대의 밝은 은하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의 나이가 지금의 100분의 1이었을 때 아주 짧은 기간에 별들이 급증하면서 은하의 수도 늘어났으며 이는 은하들의 형성이 암흑물질의 중력 이끌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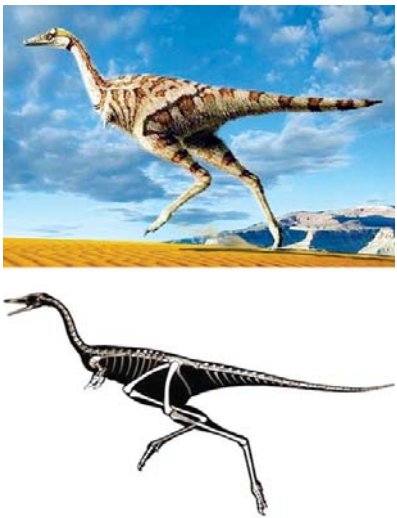
한 손가락 공룡화석 中서 첫 발견

키 20cm 체중 500g 초소형
생김새 티라노사우루스류

손가락이 하나 밖에 없는 초소형 공룡의 화석이 중국에서 발견됐다.

중국과학원 쉬싱 연구팀은 베이징구(內蒙古)자치구 린허(臨河)지구에서 손가락이 하나인 초소형 공룡의 화석을 발견해 국제학계에 보고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문화보(文匯報) 등 홍콩 신문들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발견지의 이름을 따 ‘린허조룡’(臨河爪龍)이라는 화명이 붙은 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류에 속하는 공룡으로 키가 20cm, 체중 500g에 불과한 초소형 공룡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이 공룡은 모양새가 티라노사우루스와 유사하며, 수천만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 멸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미완의 ‘N스크린’... 단점 보완이 주도권 열쇠

SKT 야심찬 공개에도 “실용성 부족·서비스 미흡” 지적

준비단계 KT의 고민은 ‘업그레이드 가능 셋톱박스 한정’

SK텔레콤이 최근 야심차게 공개한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참신한 시도라는 지적을 하는가 하면 N스크린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실용성도 떨어진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N스크린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PC, TV 등 각종 기기 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끊김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 SK텔레콤은 이를 ‘호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구현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호핀’이라는 전용 단말기를 TV와 연결된 전용 크레들에 꽂으면 N스크린이 가능하다.

갤럭시S 호핀은 일종의 셋톱박스 역할을 한다. 이는 셋톱박스나 스마트TV를 통해 N스크린을 추구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갤럭시S 호핀으로 영상 등의 미디어플랫폼인 ‘호핀’에 접속,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참신한 시도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N스크린을 지원하는 최신 셋톱박스가 없어도 HDMI 단자가 있는 일반 TV로도 N스크린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성에서 맹점도 따른다. 갤럭시S 호핀을 크레들에 계속 꽂아둬야 호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 헤드셋 역할을 하는 전용 리모컨으로 통화할 수도 있지만 단말기를 들고 통화를 하게 되거나 밖에 나가면 다른 가족들은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호핀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단점이다. 호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말기와 달리 30핀 단자를 지닌 전문 단말기가 필요하지만, 제조사들이 앞으로 SK텔레콤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지 미지수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클라우드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라고 자신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플랫폼인 호핀

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가 바탕이지만, 역시 휴대전화와 TV 간의 연결은 유선 기반인데다, 스트리밍 외에 개인 콘텐츠를 클라우드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1분기 내로 갤럭시S 호핀 외의 다른 안드로이드폰에서도 호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 경우 N스크린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다른 안드로이드폰에 앱을 설치하더라도 셋톱박스 기능은 할 수 없어 PC화면만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과 함께 통신사 간 N스크린 경쟁을 벌이고 있는 KT가 내놓은 N스크린 서비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KT 역시 아직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한 N스크린은 준비 단계다.

조만간 선보일 N스크린은 SK텔레콤과 달

리 기존 KT의 IP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에 기반한다. KT 관계자는 “셋톱박스에 N스크린 솔루션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의 고민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셋톱박스가 한정돼 있다는 데 있다.

KT도 호핀과 같은 미디어플랫폼으로 각기기에 사용자 환경(UI)을 맞춘 ‘올레tv’를 앱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KT는 향후 개인 사진 및 동영상, 문서의 저장장소인 유클라우드 등 경쟁사에 비해 앞서 있다고 자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술의 강점을 활용해 앞으로 N스크린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역시 KT와 같은 셋톱박스를 활용한 N스크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톱박스가 N스크린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양사 간의 경쟁력은 IPTV 가입자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N스크린의 창모로 지원하는 각 사의 미디어플랫폼은 궁극적으로 TV포털을 지향하는 모습이어서, 미디어플랫폼을 둘러싼 경쟁 역시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탭 판매 200만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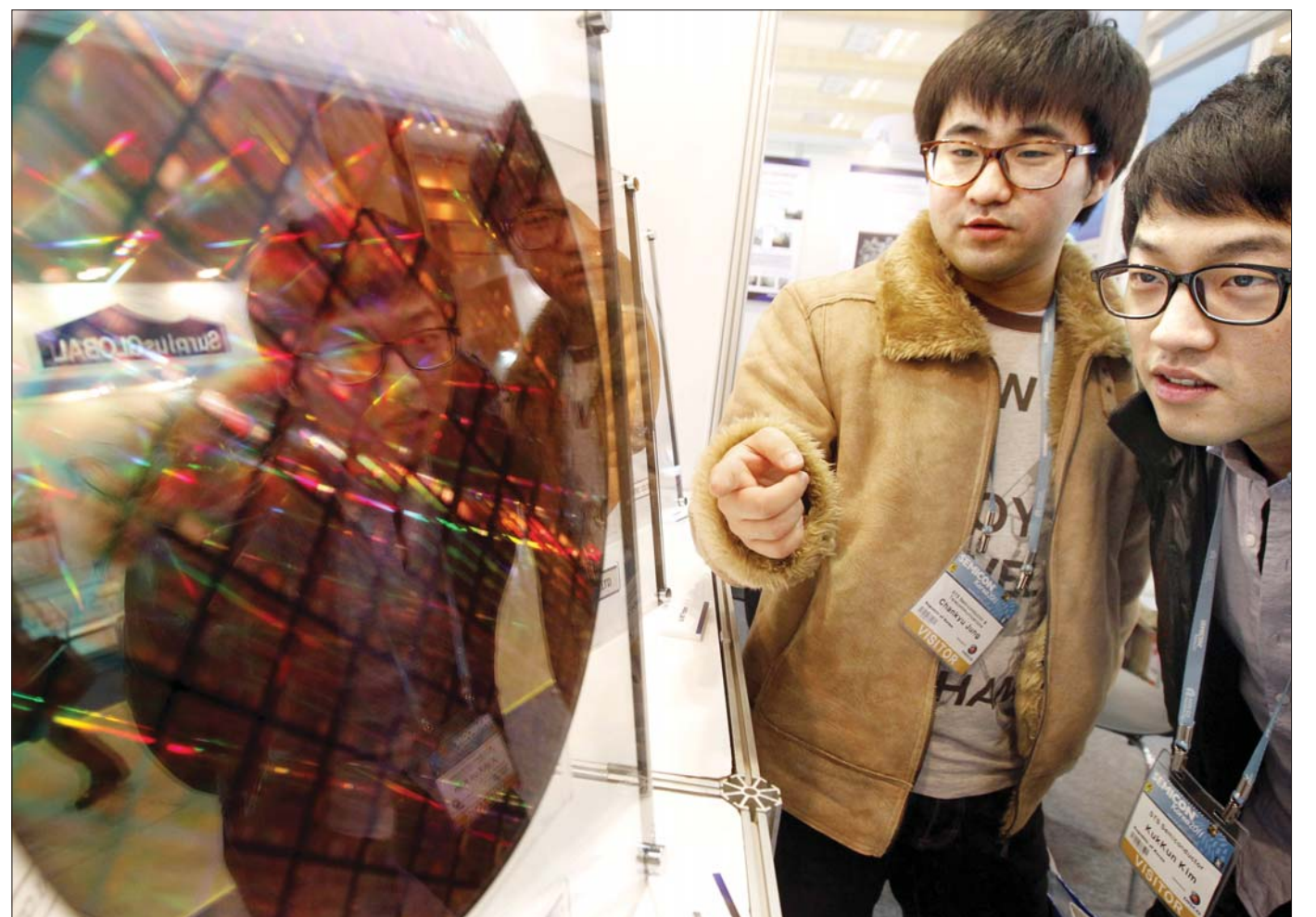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7인치 태블릿 PC인 갤럭시탭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200만대를 돌파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탭은 최근 출시 3개월 만에 해외에서 160만대, 국내에서 40만대가 판매되면서 총 판매량이 2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탈리아 통신사 TIM을 통해 세계시장에 첫선을 보인 갤럭시탭은 지난 12월 초 100만대를 돌파한 지 1개월여 만에 200만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갤럭시탭은 판매국 및 사업자를 늘려가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94개국에서 200여개 사업자를 통해 판매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별 판매량은 유럽지역 50만대, 북미 지역 35만대, 아시아 지역 33만대 등이다. /연합뉴스



반도체 장비재료 다 모였네

지난 26~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반도체장비재료 전시회 ‘세미콘코리아 2011’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400여개사가 참가, 반도체 장비재료산업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친환경다원
작은차
고품질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